

## 1. 내 운명을 바꾼 로타리

## 인생의 혜안(慧眼) 길러주는 로타리

辛澤泳  
3630 총재 · 東浦項RC

우리는 일생(一生)이라는 말을 곧잘 쓴다. 결국 한번 산다는 뜻으로 인생은 일회성(一回性)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시간(時間)은 결코 중복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사에 모든 일에 애착(愛着)을 가지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보람있게 대처해 나가는 혜안(慧眼)을 키워야 한다.

나는 그런 혜안(慧眼)을 ‘로타리’와 공식지 역잡지인 ‘로타리코리아’지에서 배운다.

1905년 2월 23일 우정과 친목을 기저로 시작된 국제로타리는 인종과 종교와 신조를 넘어서 전세계적으로 인류(人類)라는 가족 구성원을 만들었다. 또한 영원히 변치 않는 ‘초아(超我)의 봉사(奉仕)’라는 신념으로 로타리안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고 있다.

역사속의 많은 위인(偉人)들이 그러했지만 아브라함 링컨, 마하트마 간디는 이같은 ‘초아(超我)의 봉사(奉仕)’ 정신을 몸소 실천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마다 바뀌는 RI회장의 연도 테마를 보다 효율적(效率的)으로 실천하고자 클럽마다, 지구마다, 존(Zone)마다 성취의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자라는 성장 과정이 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사회적인 성공에도 반드시 일련의 성취과정을 겪게 된다. 내가 로타리안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배우고 있다는 것 역시 하나의 성취과정을 거치는 것이기에 나에게 로타리가 참다운 길잡이가 되는 벗이고, 평생 동반자(同伴者)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흔히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가운데 반드시 스승이 있다고 한다.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늘 배우려고 노력하는 삶이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의 지혜로움을 가져다 주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로타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자연의 변화에서 우리는 말없는 가르침을 받는다. 산에서는 태연자약(泰然自若)의 덕(德)을 배우고, 물에서는 변화와 겸손의 지혜를 배우게 된다.

특히 물은 지극히 유연하고, 둥글면 둥글대로, 네모지면 네모진대로 모양을 바꾸면서 거역하는 법이 없고, 늘 낮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겸허함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때론 급류(急流)를 타게 되면 무서운 에너지를 비장하고 있다.

인류봉사의 한 세기를 이어나온 우리 로타리처럼 말이다.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 나갈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자가 진정한 리더라고 했던가.

로타리의 삶 자체는 바로 우리가 남기는 고유한 유산이므로, 로타리안들이여! 나 자신의 유익(有益)보다는 모두의 가치(價値)를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때 무형(無形)의 자산인 ‘초아(超我)의 봉사(奉仕)’라는 진가는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기에 말이다.

끝으로, 로타리코리아 창간(創刊)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오늘날이지만 로타리인들의 지성(知性)을 끝까지 대변하는 공식 지역잡지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

## 로타리와 나의 심오한 인연

成基泰  
3630 총재 · 龜尾RC

사람은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삶의 방식이 크게 바뀔 수 있다. 자신의 성장과정이나 주변환경 그리고 나이가 또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20대(代)엔 역발산기개세(力拔山氣蓋世)의 역동적인 삶이라 할지라도 나이 50이 넘고 60이 되면 조용히 자신을 둘러보게 된다. 더 많은 사색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럼 로타리는 과연 내게 무엇인가? 지난 25년간의 로타리 생활은 나를 어떻게 변모시켜왔는가? 처음엔 막연히 봉사단체에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로타리에 입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지 않았다.

클럽회장이 되고 지구임원을 거쳐서 지구총재가 되는 동안 로타리는 내게 점점 더 큰 의미로 와닿았다. 이제 조용히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나 자신에게 물어보곤 한다. “너는 과연 진정한 로타리안인가?”라고. 그리고 좀 더 진실한 봉사자가 되어보려고 스

스로 다짐한다.

총재 취임후 2개월 가까이 지구내 클럽을 공식 방문하는 동안 묵묵히 봉사하는 많은 로타리안들을 나는 직접 두 눈으로 보았다.

열악한 봉사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동료들의 모습에서 더 큰 로타리를 보았다.

그 동안 몇 번의 국제대회를 참관하고 연초엔 국제협의회에서 많은 영감과 동기부여를 받았지만 내겐 또 다른 로타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요즘 나는 지구 총재직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그 동안 경영하던 병원일까지 안식년이라는 이름으로 휴직하였다.

30대 후반에 처음 로타리를 시작할 때 로타리는 내 인생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의 내겐 로타리가 내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또한 알고 있다.

남은 나의 임기동안 더 크고 깊고 넓은 존재로서 로타리가 내 앞에 다가오리라는 것을!

## 타고난 천성까지 바꿔준 일대사 인연(一大事 因緣)

李鍾天  
3640 총재 · 서울江西RC

어제는 25번째의 총재공식방문 주회연설을, 그리고 오늘은 독거노인 500여 명을 위한 복지원 마당의 ‘한가위 사랑의 잔치’ 지구봉사 축사에서 어르신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88!” 나의 선창에 큰소리의 “99!” 화답합창

을 이끈 다음 “팔팔하게 99세까지 사시라”는 덕담을 하면서 단상을 내려왔다.

나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반장, 부반장이거나 그 후 크고 작은 모임에서 리더나 책임지는 역할을 맡은 적이 없었다.

## 1. 내 운명을 바꾼 로타리

공직에서는 중앙부서 과장직 6년 다음 국장 승진을 앞두고 장·차관 등 주위분들의 만류 를 뒤로하고 스스로 사표를 던지고 수출제일 주의를 표방했던 1977년 당시 선망의 대상이던 종합상사 수출담당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다가 3년 여 지난 후 스스로 또 사표를 던지고 현재의 소매가게를 열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물러난 이유는 지나치게 내성적인 성격으로 남 앞에 서지 못하는 태생의 고질병 때문이었다.

지역 인사들의 사교클럽으로 밥값만 내면서 일주일에 한번씩 참석하면 가게장사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란 이웃 이창빈 회원의 꼬임(?)에 이끌려 클럽회원이 된 이래 이제 17년이 흘러 격에도 어울리지 않는 총재직을 맡아 세상의 일은 혼자 다하는 양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만일 로타리클럽이 봉사단체라는 것과 분과 위원장이나 회장직을 돌아가면서 담당해야 하는 줄을 알았다면 애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용하게도 클럽회장직까지 마치고 느긋하게 로타리 만년을 보내던 중 느낌이 어쩐지 이상하여 3개월을 일부러 무단 결석했다.

그러나 결국 총재 지명을 받게됐다. 지구업무의 경험도 없는 극도의 두려움병 환자가 훌륭한 분들 앞에서 수많은 행사를 어찌 감당할

지에 피를 말리는 고민의 세월을 보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직업적인 연설전문학원 원장을 찾아가기도 했다.

연설의 두려움은 누구라도 있는 것, 대개의 행사연설은 듣는 자가 없으며, 잘한다 못한다의 평가는 연설당사자만 한다는 것, 그래서 짧을수록 좋고, 늘변의 술선수범자가 행(行)이 따르지 못하는 명연사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다는 가르침을 들었다.

또한, 연설도 연습이 대가(大家)를 만든다는 철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연설을 못하는 것은 불치병이 아니며 꼭 할말을 미리 준비하고 연습만 해간다면, 그리고 너무 잘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꼴찌를 하겠다는 용기를 가지고 임한다면 대과(大過)없이 임무를 마칠 수 있음을 보장한다는 등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이 조언을 떠올려 자기취면을 걸면서 차기총재직을 거쳐 지금 총재직을 수행하고 있다. 요즘은 모르는 사람에게도 웃으면서 먼저 손을 내밀면서 인사하는 내 변신에 스스로도 놀라게 되었다.

로타리 생활은 내 일생의 가장 큰 태생의 고질병인 부정적, 내성적인 성격을 긍정적, 적극적인 인생으로 바꾼 일대사 인연(一大事 因緣)이 아닐 수 없다고 여기면서 오늘도 감사한다.

## 17년전 知인의 권유로 바뀐 봉사인생



金炳坤  
3670 총재·全州RC

과거를 알아야 미래가 보이고, 역사의식이 없는 민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온고지신(溫故知新)이 함축하고 있는 말의 뜻을 로타리안 여러분은 익히 알고 계시

리라 믿습니다.

지금부터 꼭 17년 전인 1986년 1월 지인의 권유로 오랜 전통과 고명하신 선배들이 포진해 있는 전주로타리클럽에 입회할 때만 해도

로타리에 이처럼 심오한 철학과 나보다 남을 위한 봉사정신이 로타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어렵게 사는 이웃이나 어찌다 재난당한 사람에게 하는 금전적 후원이나 일과성 행사들이 이웃을 위한 봉사인 줄로 알고 지내다가 로타리에 합류한 후 가까운 이웃뿐 아니라 국제적인 활동이 집중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로타리안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7년 전 그때 만일 ‘바쁘다’ 든지 또는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며 가입 초대를 거절했더라면 만나지 못했을 수많은 친구, 가보지 못했을 수많은 곳들, 놓치고 말았을 수많은 봉사의 기회가 얼마나 될 지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로타리에 참여해 활동하면서 먼 나라의 친구를 사귄 수 있었고, 저명한 로타리안 선배

들로부터 값진 경험을 배울 수 있었으며, 각종 로타리대회에 참석하여 견문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같은 청소년교환 학생들을 호스트할 수 있었습니다.

로타리에 관련된 책자를 경전으로 여기고 탐독했으며 지난 18년을 빠짐없이 주회에 참석하여 경험을 나누고 봉사를 실천해 온 것이 오늘의 제가 있게 된 한 동인(動因)이 아닌가 합니다.

무릇 로타리안들은 자신의 가슴에 달고 있는 로타리배지가 부끄럽지 않도록 초아(超我)의 봉사를 생활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가입당시 제가 로타리에 가입할 것을 거절했다면 이 나이가 되도록 숭고한 로타리의 이념과 봉사의 의미를 모른 채 한낱 범부로 늙어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 영원히 잊지 못할 바로셀로나 국제대회의 감동



李在允  
3700 전총재·大邱東信RC

시대는 영웅을 만들고, 영웅은 시대를 만든다고 했다. 로타리 창립 90년 만에 두 번째 회원 감소를 경험한 한국로타리로서는 회원 증가가 지상과제가 되었다.

3년 동안 감소하던 회원수로 2000~01년 드디어 로타리는 회원배가운동(Global Quest)을 전개했고 그 중심에 리차드 킹 당시 RI회장이 섰다.

그는 대단한 정력가이자 뛰어난 연설가였으며, 대단히 부지런한 쇼맨십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그가 존9 연수회 참석차 방한했을 때 그가 탄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서 회항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행사시간에 빠듯

하게 맞춰 도착했다.

마중나갔던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들 부부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들 사고방식이라면 험레벌떡 식장으로 다가와야 하겠지만 킹 회장 부부는 20분이 지나서야 행사장에 나타났다. 옷매무새를 고치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연설 연습도 한번 해보고 난 후 충분한 준비를 한 후였다. 그는 로타리 지도자였지만 또한 배우였던 것이다.

그는 행사에서 연설과 노래와 춤으로 최고의 연기를 했다.

한국의 로타리 연수리더들이 에반스톤 등지에서 여러 번 행사에 참여했는데 여러 장소에

## 1. 내 운명을 바꾼 로타리

서 그는 다섯 번이나 똑같은 연설을 하고 매번 울었다고 한다.

대단한 연기자가 아니면 똑같은 스피치를 다섯 번이나 하면서 어떻게 매번 눈물을 흘릴 수 있겠는가?

또 국제협의회때 한 회원이 행사 전에 일이 있어 그의 방을 찾았는데 그는 아주 큰 소리로 연설 연습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선천적으로 좋은 목소리와 말솜씨가 있었는데도 로타리안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훌륭한 지도자였다.

이러한 그의 열성 덕분에 독수리(2001~02년도 로타리 지도자를 일컬음)들은 괄목할 만한 회원 증가를 이루어 냈다. 또한 그 해처럼 회원증가가 최대의 이슈가 된 해도 없었다.

3700지구 역시 시대의 요청에 부응해 전력을 다해 회원증가에 노력했다. 세계 5위 내로 입상한다는 목표로 클럽 15개의 창립을 위해 7월 1일 총재 취임식 때 15명의 특별대표를 위촉했다.

한편으로는 바로셀로나 국제대회에 한국로타리안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여행사 대표를 국제대회 참가촉진위원장으로 임명하고, 50명 이상 참가하도록 계속 홍보했다.

‘열린 로타리’라는 가치를 걸고 회원 입회 연령을 평균 10세 정도 낮추고, 더 많은 여성회원을 영입하도록 목표를 세웠다.

기존 회원 1,940명에서 신입회원 2,200명을 증가시켜 회원증가 113%를 달성했다.

25개 클럽이 창립되었으며 특히 여성클럽은 기존 7개에서 10개가 창립되어 도합 17개가 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여성클럽과 회원수를 자랑하게 되었다.

또 한가지 기록적인 사실은 10개 클럽 합동 창립식을 가졌던 것이다.

당 해에 몇몇 지구와 나라에서 공동으로 12개 클럽 합동 창립대회를 가진 기록은 있었다.

그러나 단일 지구로서 10개 클럽 합동 창립 총회를 가지기는 우리 3700지구가 처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자리에서 吳在環 전RI이사는 ‘로타리 초

심 새롭게’라는 주제의 연설로 신입회원들을 감동시켰다.

李東建 로타리재단관리위원이 총재 당시 32개 클럽을 만들어 이미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3700지구에서는 회원증가 퍼센트에서만 기록을 세우기로 했다.

3700지구의 독수리 52명은 회원증가 세계 1위의 수상 꿈을 안고 바르셀로나로 향했다. 마침 한국 월드컵이 계속되고 있었다.

우리가 포르투갈에 도착했을 때는 한국팀은 포르투갈을 이겼고, 우리가 바르셀로나에 도착했을 때는 스페인을 이기고 4강에 합류했다. 마치 징기스칸이 한나라, 한나라를 정복하고 스페인까지 정복하는 기분이었다.

드디어 우리는 바르셀로나 국제대회에 입성했다.

‘환영’이라는 대형 한글 간판이 새겨져 있고, 한국어 동시 통역도 준비되어서 한층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실감했다.

스페인 축구가 한국팀에 저서 한국 사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고, 한복입은 한국 여성회원들과 사진 찍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았다.

리차드 D. 킹 당시 RI회장은 개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행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은 로타리안입니다”라고 역설했고, 인류의 평화를 위한 고르바초프 연설도 감명 깊었다.

우리 축구선수들이 독일에게 아깝게 패했다는 비보와 동시에 인도 사람들이 마지막 한달 동안에 3,000명을 증가시켜 우리 3700지구가 2등을 했다는 슬픈 소식도 같이 들렸다.

우리는 충분히 1등을 하고도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4월 이후에는 신입회원은 RI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용해 인도 3260지구에서 허위 회원 등록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RI에서도 조사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으나 짧은 기간이라서 그대로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모두가 사실은 3700지구가 1등이라며 위로해주었다.

그래서 매년 1위가 연설하는 것을 취소했고 ‘베스트 5 최우수 지구’로 모두 동등하게 대접해줬다. ‘최우수 클럽 베스트 10’에는 대구의 신생클럽인 대구이글RC가 들었다.

또 베스트 50에는 존 9의 3600, 3660, 3670, 3690지구가 포함되었고, 우수 클럽으로 한국의 여러 클럽이 수상했으며, 韓時俊 전총재는 최우수 RIMC상을 수상했고, 李東建 이사도 상을 받았다. 존9은 또 재단 기여에 1위를 해서 기쁨이 배로 커졌다.

모두가 한국을 축하해 주어서 우리들은 서운한 감정을 버리고 이내 축제 무드에 빠져들었다. 국제대회 단상에서 우리 한국 로타리 지도자들이 20분간이나 축제 분위기로 사진을 찍었다. 매마침 띄운 수만개의 풍선이 분위기를 절정으로 이끌어 내었다.

우리는 순위와 관계없이 세계 최우수 지구였다. 우리는 더 이상 심판에 불복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고, 실제로 1등이었으므로!

그리고 도와주신 李東建 RI이사님, 韓時俊 RIMC, 로타리 한국지구 임원 여러분, 국제로타리코리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기 총재들이 “처음에는 선의의 경쟁심을 가졌으나 지금은 3700지구에서 큰 업적을 이루어서 우리들이 함께 빛났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며 우정어린 격려를 보내주시는데도 감사를 드립니다.

후회없이 믿고 열심히 따라준 3700지구 모든 독수리들에게 이 영광을 보낸다.

100주년을 맞게되는 로타리에 더욱 발전 있으라!

## 넓은 세상으로 나가게 해준 로타리 주회



高錫太  
3710 총재 · 光州無等RC

나는 26년 전인 1977년 12월에 한 친구의 권유로 로타리에 입문했다. 당시 내 나이 42세가 되는 불혹의 나이였고, 대학교수 생활 14년째 되는 해로 부교수가 되어 학문의 연찬(研鑽)과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지도, 학회 활동 등으로 나름대로 내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터였다. 따라서 옆을 돌아 볼 여유가 없는 시기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로타리클럽 창립을 위한 첫모임에 모였던 20여 명의 회원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각자 자기 분야에서 무엇인가 이룩하려는 의욕이 불타는 눈동자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과, 이 모임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

고 사회에, 더욱이 지역사회에 뚜렷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모임으로 성장할 것 같은 예감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또한 매주 주회의 참석회수가 늘어나면서 인간의 단면과 이 사회를 다른 시각으로 조명해 볼 수 있는 식견을 갖게 되는 것을 느꼈다.

일반적으로 교수사회, 특히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상당수의 교수들은 좁은 자기 분야에서 조금 아는 것이 전부인 양 착각 속에서 사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풍토 속에 어느 정도 젖어있던 나로서는 사고와 사상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 1. 내 운명을 바꾼 로타리

서 새로운 인간 세계에 대한 눈을 뜬 것 같다.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로타리모임에서의 대화는 새로운 세계의 신선함을 주었으며, 이러한 일들 속에서 나의 시야와 사물에 대한 수용폭은 점진적으로 관대해지면서 점점 그 매력 속으로 젖어드는 듯 했다.

이러한 것은 나의 교수 생활을 훨씬 풍부하게 하였고, 되돌아보면 이것들이 학생들의 인생관이나 사회관을 정립하는데 보다 많은 기여를 했을 것으로 믿어진다.

그리고 우리 로타리의 네 가지 표준 ‘진실한가. 공평한가.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모두에게 유익한가’는 내 마음속에 항상 자리잡고 있으면서 누구의 말처럼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 최고는 못되어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게 했다.

학생지도에서, 실험실에서, 연구에서, 내 사회생활에서 네 가지 표준과 더불어 봉사의 정신을 신조로 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

로타리 생활 중 가장 값진 얻음이 아니었는가 생각한다.

요즈음 총재직을 수행하면서 로타리의 봉사 정신을 실천에 옮기도록 회원들에게 이야기 하면서 봉사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혜택이 아니라 자기 행복의 극대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때의 내 당당함도 그 동안의 로타리활동이 가져다준 은혜가 아닌가?

“당신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늘에 떠있는 구름 저 너머의 하나님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 당신의 이웃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몰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한 독일의 철학자 피어터의 말을 소개하면서,

“당신은 진정한 로타리안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때 나를 보십시오.”라고 언제든지 말할 수 있을 때가 오기를 기대한다.

## 로타리가 바꾼 내 人生 行路



鄭 哲 圭  
3640 · 서울 永登浦RC 전회장

금년 8월, 로타리생활을 시작한지 만 31년을 맞이했다. 그 동안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과연 로타리가 나의 봉사정신을 일깨워 주었는가를 생각해보게 된다.

나는 빈곤한 가정환경 속에서 일제시대와 6.25전란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으면서 험겨운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러면서 사회에 나가서 성공해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왔다.

1951년도에 고무산업계에 샐러리맨으로 입

사하여 약 16년간을 기술인으로 근무한 후에 원대한 포부를 안고 중소기업체를 창설, 35년동안 기술경영인으로 활약했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만 50년간의 ‘고무인생’을 마치고 직업전선에서 은퇴했다.

그 동안 일인다역(一人多役)의 바쁜 생활 속에서도 나는 기업활동 이외에 학회, 모교동창회, 사회공익단체 등의 활동에도 취미를 갖고 적극 참여해 왔으며 로타리활동도 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이였다.

이러한 활동은 나의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

계는 없고 적지 않은 시간을 소비하기도 하였으나 인격도야 등 사회에 봉사함으로써 얻는 간접적인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었다.

나는 1972년에 서울영등포RC에 입회했다.

로타리 조직을 통해 힘이 미치는 대로 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로타리에 입문하자마자 나는 충실한 로타리안이 되고자 노력해 왔으며, 4대봉사부문의 직책을 고루 맡으면서 로타리 봉사이념을 심어왔다.

재무, 총무, 부회장, 회장, 총재지역대표 등의 직책을 두루 맡으면서 ‘일하는 로타리안’이라는 평을 들을 만큼 일하는 것을 취미로 삼고 활동해 왔다.

재무로 봉사할 당시, 클럽의 재정업무를 체계화시키고 회원각자의 봉사실적에 대한 통계표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회원간의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반발도 있었으나 이러한 기록이 봉사기여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견지에서 오늘날까지 그 기록이 지속되고 있다.

총무시절에 대만의 台中RC와 자매결연, 회장시절에 일본 大阪港RC와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클럽 부인회를 창설한 후에 부인회 합창단을 조직해 봉사활동에 동참하도록 했다.

그 동안 세 번에 걸친 365지구협의회 분과 토의회의 모더레이터 역할을 담당했고, 제2회 ‘생명의 선물’ 운동기념 서울지구 합동주회 위원장, 365지구대회 위원장,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 지구위원장, 로타리재단 지구위원장 등의 지구임원을 역임했다.

가장 보람있었던 일은 서울영등포로타리클럽의 창립25주년 기념 사업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이 역사적인 행사를 성대하게 치렀다는 것이다. 특히 25年史의 편집은 클럽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후세에 남기는 중요한 일이었기에 약 1년여 동안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작품이었다.

이 年史에는 국제로타리, 한국로타리, 지구, 그리고 25년간의 서울영등포RC의 역사가 수록되어 있어서 로타리안에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에 이 책자가 국회도서관에 소장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1994~95년도에 국제봉사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필리핀의 Las Pinas 市에 있는 청소년직업훈련소를 지원하기 위한 1만 2,000달러 규모의 매칭 그랜트 국제사회봉사(WCS)를 성사시킨 것도 서울영등포로타리클럽의 자랑이었다.

이 사업을 위해 필리핀을 두 번 방문하면서 그들의 불우한 생활환경을 보고 우리들이 모은 3,000달러로 그들을 도왔다고 생각하니 이러한 사업이 바로 로타리의 진정한 국제봉사 이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한편 클럽 활성화를 위한 동호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왔으며 특히 일요일마다 실시한 산악동호회의 주동 멤버로서 200회 이상의 등산기록을 세웠으나 점차 회원들이 고령화 되고 탈퇴하게 되어 산악회 활동이 중단된 것은 아쉬운 일이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6명의 회원이 하루만에 14시간의 힘겨운 행군 끝에 설악산 대청봉을 정복한 사실이다.

또한 서울영등포RC 회원 단독으로 北·中·남미, 유럽, 호주, 동남아, 일본 등에서 개최된 국제대회 및 자매클럽 친선방문을 하는 여행을 여러 차례 실시하였는데 본인이 리더역할을 해 즐거운 여행을 한 아름다운 추억이 남아있다. 이제는 대다수의 회원들이 탈퇴한 상태이니 아쉬움을 금치 못한다.

한편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에 대한 기여도에 있어서 재단 창립 때부터 서울영등포RC는 적극적인 참여를 해 왔으며 출연금에 있어서 오랫동안 전국 클럽 중 최고의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의 출연금 총액은 8억 4,000여만 원으로 이러한 기록을 세우는데 있어서 본인도 일익을 담당해 왔다.

나는 1988년도에 (재)한국장학문화재단에 1,000만원 기부실적 전국 개인최고기록을 세워 金永徽 이사장의 특별공로상을 받은바 있다. 그 이후에 고액기부자가 급속하게 늘어나

## 1. 내 운명을 바꾼 로타리

서 현재 재단의 총출연금은 약 400억 원의 대규모 재단으로 발전하였다.

나는 2001년도에 1억원의 고액기부자가 되었고, 지난 7월 1일에 1억 3,000만원을 추가로 기부하여 누계액 2억 3,020만 원으로 재단설립 30년만에 다시 개인최고기록을 갱신하였다.

이러한 금액은 결코 큰 금액은 아니며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재단 30년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전국 17개 지구의 평균 출연금액은 23억 5,000만 원, 1,187개 클럽의 평균 금액은 3,370만 원, 4만8,000명 회원의 평균 금액은 83만3,000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2억 3,000만 원의 개인출연액은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원한 1등은 없다. 이러한 기록은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 갱신될 것이며 이러한 기록의 갱신이 거듭됨으로써 재단은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 나갈 것이다.

나는 충실한 로타리안이지만 지구총재를 할 만한 책임자는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기 때문에 총재를 역임하지 못하는데 대한 아쉬움은 없다.

일본의 어느 지구총재가 “로타리안으로서 지구총재를 역임한다는 것은 최대의 봉사를 하는 직책을 맡은 것이지만 최고의 로타리안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총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가장 많은 봉사를 하는 사람이 최고의 로타리안이다. 당신은 총재는 안했지만 더욱 분발하여 최고의 로타리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내게 말했다.

이 말을 ‘최고는 못되더라도 최선을 다한다’는 나의 생활신조와 공감이 가는 매우 고무적인 말이었다.

1988년에 나는 고희(古稀)를 맞아 본격적인 사회봉사생활을 시작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청소년교육사업을 시작했고 작년 말까지

기본자산 54억 원의 증견재단으로 육성했다.

한편 모교(母校)인 서울대학교에 35억 예산으로 信陽학술정보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약 1년 후에 이 공사가 완공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이끌어 갈 공학도들의 양성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비록 내 육신은 사라지더라도 내 이름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생애 최고의 기쁨을 느낀다.

또한 나의 전공분야인 고무기술인의 양성을 위한 (社)한국고무학회의 학술보급사업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남을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물질적인 봉사도 중요하지만 심신의 봉사도 중요하다.

내가 이 사회에서 얻은 풍요로움을 나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위의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것, 벼랑 끝에 서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자신의 生命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해주는 희생적 봉사, 이러한 것이 바로 ‘용기있는 초아(超我)의 봉사정신(奉仕精神)’ 일 것이다. 봉사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봉사를 할 수 없다.

지난 2001년도에 나는 ‘고무人生 50年’의 직업활동을 마치고 남은 제3의 인생을 사회봉사를 위한 보람있는 여생으로 장식하고자 한다.

이제 나의 로타리활동은 나의 봉사생활의 일각(一角)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31년 동안의 나의 로타리생활이 나의 인생관에 봉사의 이념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최고의 로타리안이 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로타리는 봉사의 이념을 심어주는 ‘평생교육의 장’이며, 왜 로타리 생활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거기에 봉사와 우정이 있고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싶다.